

코스콤, 신입교육 노하우 핀테크채 취업 꿈나무에 푼다

»» 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1.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...핀테크 인턴십 코스

- ① 코스콤(사장 홍우선)이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나서며 금융IT 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중.
- ②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 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교육 사업인 ‘핀테크 인턴십 코스’에서 교육 실무 수행을 3년째 맡아오고 있는 것.
- ③ 지난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3기를 맞은 핀테크 인턴십 코스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료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. 아울러 해당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우수한 핀테크사에 취업을 하면서 핀테크 인턴십 코스는 어느덧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불림.

2. 코스콤 신입교육 노하우까지 다 푼다.

- ① 특히 해당 인턴십 코스에서는 금융IT 전문 기관인 코스콤의 실제 신입사원 교육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핀테크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음.
- ②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분야 전반에 대한 공통 필수교육을 시작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역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 됨. 기획 분야 직무를 희망하는 교육생에게는 ▲서비스 기획 ▲마케팅 ▲UI/UX 교육을, 개발 분야 직무를 희망하는 교육생에게는 ▲금융 데이터 분석 ▲머신러닝 ▲웹서비스 개발 등의 교육을 진행함.
- ③ 아울러 교육생간 팀을 구성하여 5주간에 걸친 해커톤(팀을 이뤄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시제품 단계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대회)을 진행하여 기획인턴과 개발 인턴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·발표까지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.

3.코스콤 본사에서 직접 인턴 경험도

- ① 해당 과정 수료생 중 인턴십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코스콤, 쿼نت,페이워치코리아, 깃플 등 유수의 핀테크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도 가질 수 있음.
- ② 코스콤도 해당 인턴십 수료생 중 2명을 인턴으로 채용, 현장 근무를 바로 곁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중.
- ③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“핀테크 전문 인력 사관학교로 불리는 핀테크 인턴십 코스에서 우리 회사가 실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차며, 특히 코스콤의 실제 신입사원 교육 방법론을 기초로 구성한 커리큘럼이 핀테크 기업 준비 지망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”며 “앞

으로도 코스콤은 핀테크 인턴십 코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핀테크 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것”이라고 말함.